절반의 성공 여수박람회

하 사후 활용이 관건

여수세계박람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활용이 필수적이다. 박람회장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여수가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를 해양 관광·레저의 메카로

공사 설립 시설·부지 등 관리

빅오 등 리모델링해 상설운영

여수세계박람회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활용이 필수적이다. 폐막 후 박람회장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여수가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후활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폐막 후 박람회장은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존' '복합컨텐츠존' '해양레저존' 등 3개의 큰 축으로 개발된다. 또 전남도와 여수시가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여수세계박람회공사(안)를 설립해 사후활용을 맡기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민간주도 해양 관광 거점으로 육성=정부의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개발과 남해안 선벨트 등과 연계된 해양 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먼저 엑스포역과 크루즈 터미널 일대인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존'에는 복합상업시설, 해양형워터파크, 리조트형 숙박시설, 해양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세부적으로 아울렛, 음식점, 기념품점, 실내 스킨스쿠버, 실내 서핑장, 해수 스파, 휘트니스, 나이트클럽 등이 입주한다.

또 한국관, 엑스포홀,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일대는 '복합컨텐츠존'존으로 개발되고 국제회의장, 테마파크, 산업전시관, 과학관, 기업홍보관, 워터파크, 테마레스토랑, 갤러리, 실내공연장 등이 자리하게 된다.

엠블호텔 일대에 조성되는 '해양레저존'에는 요트계류장, 마리나클럽하우스, 마리나 교육시설 및 전시·판매시설, 요트정비·수리시설이 들어선다.

◇여수세계박람회공사 설립 논의=사후활용을 맡을 주체에 대해서는 여수세계박람회공사를 설립해 맡기는 안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단지 전체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부지 전체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일괄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여수세계박람회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50명 내외로 꾸려지는 이 공사는 박람회 시설·부지를 소유하고 주제관·한국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또 민간투자 유치 작업도 맡고 부지 임대료, 광고, 시설물 운영수익 등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전남도와 여수시 등과 협의해 운영비의 30~50%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건물 활용 계획(㎡)

박람회용도	사후활용 계획	면적
주제관	해양연구센터	8860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9245
기후환경관	업무시설	2569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13104
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상업시설	7063
지자체관	해양테마상업시설	5300
국제관	관광형 해상상업시설	51607
국제기구관	관광형 해상상업시설	4117
기업관(임대)	업무시설	6997
기업관(독립)	기업업무시설	4696
엑스포홀	다목적공연장	15414
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5539
야외공연장	교통환승센터	25442
참가국·귀빈용 숙박시설	콘도	16493

◇빅오 등 특화시설 관광 자원화=빅오와 EDG, 스카이타워, 아쿠아리움 등 박람회 특화시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리모델링해 상설 운영된다.

빅오는 뉴미디어쇼나 문화공연, 해상쇼 등을 선보이게 되고 EDG는 각종 공연과 이벤트 장소로 쓰인다. 또 스카이타워는 전망대에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조성하고, 아쿠아리움은 건립을 맡은 한화가 30년 동안 위탁 운영한다.

이들 시설은 테마파크운영업체 등 민간에 맡기거나 사후활용 주체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한 해 빅오(해상쇼 포함) 30억원, EDG 15억원이 넘는 막대한 운영비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민간투자 지원 논의=정부는 현재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거나 투자 기업에 법정 최대 한도로 취·등록세, 법인세·제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각종 부담금, 공유수면점·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토지매각과 임대조건을 완화해 매각대금을 일정 거치기간 후 장기 저리로 상환하고, 무상 임대기간을 제공하거나 저가 장기임대하는 등 부지 매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면세점, 비자면제 등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과 박람회장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하거나 해양·관광·마리나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현재 사후활용 참여에는 이랜드(쇼핑몰과 리조트), 코레일(엑스포역 일대), 롯데(엔터테인먼트 리조트존), 삼성(해양레저존) 등의 기업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세비야, 정부 주도적으로 나서 성공 운영

■ 각국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의 주체를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지자체, 공사 등 정부 주도 ▲민간기업 위탁 ▲민간 위탁과 정부 지원 결합 형태이다.

1990년대 이후 열렸던 세계 각국의 엑스포 사후 활용도 이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박람회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비야(1992년), 리스본(1998년), 제노바(1992년)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후활용에 나서고 있는 곳은 세비야다. 세비야는 정부가 출자한 국영회사를 통해 박람회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 51%, 주정부 44%, 세비야시 5%를 출자했고 박람회장 부지를 40년간 저리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전시관 중 하나인 미래관은 컨벤션 센터로 변경 후 국제육상대회를 개최했고, 세비야대학과 정부·기업의 주요 연구소도 이전했다.

민간기업에 위탁해 성공한 엑스포는 리스본이 있다. 리스본은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개발 권한을 민간기업에 위임해 유럽에서 2번째로 긴 바스코다가마교를 랜드마크로 개발했다. 또 미래관에 리스본 카지노를 오픈했다.

정부가 자산을 소유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제노바의 경우다. 제노바는 지자체 51%, 상공회의소 39%, 항만공사 10% 등이 출자해 주식회사(Porto Antico)를 설립해 낙후된 항구의 재개발 차원에서 사후활용을 했다. 랜드마크로 유럽 2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을 건설했고, G8 정상회의 등 지속적인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의 꿈 향한 새로운 시작"

김충석 여수시장 폐막 기자회견

"여수세계박람회는 끝이 아니라 '세계 4대 미항 여수''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 등 여수의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충석 여수시장〈사진〉은 1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성공리에 마친 여수박람회 폐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박람회에 대해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과'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구현에 충실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세계의 문화가 한 자리에서 조화롭게 공존한 성공박람회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기적적인 성공을 가져온 것은 박람회를 위해 쏟은 여수시민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라며 성공개최의 공을 30만 여수시민들에게 돌렸다. 특히 "박람회 관람객 800만 돌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라는 신념으로 도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여수시민들이 일구어낸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람회 개최 성과에 대해서는 "여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각종 SOC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도시와 세계 4대 미항으로 자리매김했고,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라는 유산을 남겼으며, 세계 속의 여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여수시의 비전으로 "이번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꿈이자 최종 목표인 세계인 누구나 한 번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국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수도' 건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정부, 사후활용 나서야"

여수엑스포시민포럼

여수엑스포시민포럼은 13일 "여수세계박람회 폐막 후 전시시설들은 민간자본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과 재원확보를 통해 사후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이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93일간의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해양의 소중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고 향후 여수에서 기후변화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선언'이 일회성 미사여구가 아닌 전 세계인이 실천해갈 기후보호 합의서가 되도록 최소한 BIE회원국들만이라도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빛日만평

- 김종두

까불지 말고 살도록 …